

제 6장 고려시대의 지도와 지리학

<고려시대 지도자료(2013.11.21)>

A)정묘일에 大廟에서 왕이 친히 합제를 거행하고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이에 앞서 李深, 智之用 등이 송나라 사람 張喆과 공모하여 심은 동방흔(東方昕)이라는 가명으로 송나라 太師 진희에게 보낼 편지에 쓰기를 “만약 당신이 金을 정벌한다는 명목으로 고려에 길을 빌리고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한다면 고려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지용은 이 편지와 柳公植의 가장으로 되었던 “고려지도”를 송나라 상인 彭寅에게 주어 진희에게 전달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번에 송나라 도강 林大有가 그 편지와 지도를 가져와서 고발했으므로 장철, 이심, 지지용 등 3명을 옥에 가두고 추궁하니 그들이 다 사실대로 고백하였다. 그 후 이심과 지지용은 옥중에서 죽고 장철은 사형에 처하였으며 그들의 처는 모두 먼 島으로 귀양을 보내었다.(『고려사』 의종 2년, 동 10월)

B)<중략> 우리나라의 군현은 지도에 나타난 것이 대강만 있고, 자세하지 못하여 상고할 수 없었다. 삼국을 통합한 후에 비로소 고려도가 생겼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산맥을 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철령에 이르러 별안간 솟아 오르며 풍악이 되었고, 거기서 종종 첩첩하게 되어 태백산·소백산·죽령·계립·삼하령·추양산·이 되었고, 중대는 운봉으로 뻗었는데, 지리와 지축이 여기 와서는 다시 바다를 지나 남쪽으로 가지 않고 청숙한 기운이 서려 몽쳤기 때문에 산이 지극히 높아서 다른 산은 이만큼 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중략> 또 우리 지도를 조사하여 정리해서 셋으로 만들어서 각각 책 위에 붙였으니, 모든 군현을 모두 예전 이름으로 기재하였고, 그 아래에 지금 이름으로 주를 붙였는데, 다만 삭정이북과 평양이서의 지지에 안된 것은 바로 지금 이름으로 기재하였다. <중략> (『동문선』 권92, 삼국도후서, 이첨)

C)나홍유는 羅州 사람이다. 사람이 영리하게 보였고 익살스러운 풍자를 잘 하였다. 경서와 역사를 상당히 공부하였으나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해 급제하지 못하고 글방을 차리고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공민왕 때에 中郎將으로 임명되었다. … 왕의 명령에 의해 나무로 龍을 만들어 궁전문을 장식하는 사업을 감독하고 마침내 기교가 있다는 소문이 났다. 司宰丞으로 승진하였다가 司農少卿으로 전임하였다. 중국과 우리나라 地圖를 편찬하고 개벽 이래 帝王의 흥망과 국경의 변천한 자취를 서술하고 말하기를 “옛적 사적을 좋아하고 학문이 훌륭한 군자는 이것을 보면 가슴 안에 또 하나의 천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왕에게 바치니 왕이 보고 그를 가상히 여겼다. 나홍유는 전대의 사적을 곧잘 말하였으므로 왕이 총애해 언제나 老生이라 불렀으며 항상 측근에 두고 혹 시를 짓게 하고 혹 농담도 하였으며 때로는 임금의 식사도 물려주고 지어는 손수 국에 간을 맞춰 주기도 하였다. 나홍유는 걸핏하면 이것을 남에게 자랑하였으며 왕의 명령에 의해 지은 시를 베껴 史館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늙은 신하로서 임금의 지우를 받으니 太公 周文王을 만난 것 같고 식사를 같이 하며 종이를 주어 시를 짓게 하니 李太白이 당 현종을 만난 것 같다. 어찌 周柱와 동호의 붓을 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가 자기를 분식하고 명예를 구하는 것이 이러하였다. 헌사에게 나홍유가 影殿의 재목을 도용한 것을 규탄해 면직되었다.(『고려사』 권114, 나홍유전)